

다산포럼

김민환



'중앙일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뉴스는 대부분 사람을 만나 취재하기 때문에...

석좌교수 신영복을 만났다. 신영복은 누구인가? 스투일곱의 나이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20년을 그 안에서...

'중앙일보'가 말하는 시대정신

승(稱)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착각했다.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가 증오가 아닌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전율을...

정을 만났다. 안희정이라면 메이저신문이 조롱을 일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동지라고 부른...

그는 명화 '만추'를 연출한 이만희 감독의 딸 이해영 앞에서 18번이라는 노래 '시냇물'도 부르고 영화 '부부의 연인' 주제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박필순



곧 설 명절이다. 설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부산하다. 물가가 너무 올라 못살겠다는 한숨소리로 이곳저곳에서...

고 있다'는 경구를 앞세운 'Eating Oil'은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된, 소비자의 감목 밖에 있는 농산물엔 엄청난...

기고

김동수



따르릉, 따르릉... 설새애이 전화벨이 울린다. 3~4명의 직원이 전화받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마냥 행복한...

'(설명을 듣고)뭐, 내야죠, 다들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인데, 이왕 나온 것 별게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시설

'대형 피해' 경각심 일깨운 지리산 산불

지난달 30일 낮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인 31일 오전 7시쯤 완전히 진화했다. 당초 이 산불은 1000여 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등이 진화에 나서면서...

자실화 42.0%, 논·밭두렁 소각 18%, 담뱃불 실화 10% 등을 보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광주시, 美 K2그룹 투자 꼭 성공시켜야

광주시가 미국의 영화투자회사인 K2 그룹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달 28일 K2 그룹의 사장 이광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할리우드 영화투자사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밥상 차리는 명절 되세요

기는 조금 적게 사고 대신 생선과 떡, 과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조금 더 싸고,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서 설 준비를 한다. 바로 그곳이 대형마트이다...

이어야 한다. 또 우리가 먹는 식품만큼은 생산자의 농민과 교류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시장에서 얼굴 없는 식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작거래'로 '얼굴 있는 식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희망지रो에 희망을 담아 주세요

수 없는 이념, 항자불살의 인간생명존중 사상,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공자의 인 사상이 깊게 스며든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적십자이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적은 나라이며, 300만명에 가까운 차상위계층이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無等鼓

올해 설(3일) 연휴는 유난히 어수선할 것 같다. 평소 같으면 고향 찾아가 그리운 이들 얼굴을 맞닥뜨리게 가슴이 부풀 텐데 올 설 시장은 여느 때와 다르다.

지도록 뽀뽀하게 채운 귀성행렬이나, 고향 가는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짐보따리와 함께 대합실에 널브러진 중국인들을 담은 외신 사진은 단골 스케치 메뉴다.

눈물의 귀성



올해 설(3일) 연휴는 유난히 어수선할 것 같다. 평소 같으면 고향 찾아가 그리운 이들 얼굴을 맞닥뜨리게 가슴이 부풀 텐데 올 설 시장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것은 펍 서클뿐 일이다. 많은 이들이 설에 태자리를 밟고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속이 편해지는 경험을 했을 터여서 고향에 못 가는 서운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장기 기증자 보험가입 등 사회적 불이익 없어야

자신의 장기를 내준 기증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장기기증자들을 기다리며 의료장비에 의지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는 환자들이 많다.

다. 이 이유는 장기를 기증해 줬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까운 지인도 신체는 건강하지만 장기를 기증했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로 취급돼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드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